
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

2022. 6.



농림축산식품부
축 산 정 책 과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「제1·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」 평가	2
1. 주요 내용	2
2. 추진 성과	3
3. 한계	4
III. 국내 말산업 현황	5
1. 국내외 말산업 현황	5
2. 개선 필요과제 및 해결방안	7
IV.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	9
V. 기대효과	25

I. 추진배경

- 말산업육성법(제5조)*에 따라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

* 말산업육성법 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농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('17~'21)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필요

- 그동안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기반 확충과 승마체험 지원으로 말산업 규모는 지속 성장해 왔으나,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일시 정체

* 농어촌형승마시설 : ('13) 86개소 → ('21) 260, 승마체험지원(누적) : ('12) 1.3만명 → ('21) 약 50

* 말산업 규모(경마 제외) : ('12) 2,671억원 → ('17) 4,325 → ('19) 4,274 → ('20) 3,060

- 말산업의 추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의 수요 확대 및 다양한 말 문화 조성 등 여건 조성 필요

-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라 승마 등 말산업은 새로운 레저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충분

* 우리나라 1인당 GDP : ('12) 25,458 USD → ('16) 29,287 → ('20) 31,494

- 최근 확대되고 있는 레저시장의 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자 기반의 말산업 육성 정책 마련 필요

* 레저산업 규모 : ('12) 48.9조원 → ('16) 56.4 → ('19) 64.9 → ('20) 51.1(코로나 영향)

 **말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승마 등 말산업을 새로운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 경제에 기여**

Ⅱ. 「제1·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」 평가

1 주요내용

◇ 그동안 2차례에 걸친 말산업 종합계획 수립*을 통해 말산업 육성 및 진흥정책 본격 추진

*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: 1차('12년~'16년), 2차('17년~'21년)

-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말산업 성장 기반 마련
 - 농어촌형 승마시설, 지역단위 공공승마시설, 승마길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
 - 지역단위 거점의 말산업 육성 전략기지 조성을 위한 말산업 특구 지정
 - 말산업 관련 전문 자격제도 도입,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
- 말 이용 수요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
 - 승마체험 지원, 유소년승마단 육성, 승마대회 지원, 기승능력인증제* 도입 등을 통한 승마 저변 확대
 - * 장애물 뛰어넘기, 마장마술 등 기승 능력에 따라 단계별(1~7등급)로 인증하는 제도
- 말 생산 농가 및 국산마 경쟁력 강화
 - 전문 승용마 생산 농가 지원 및 우수마 육성·조련·유통체계 마련
 - 국산 경주마 수준 향상, 경마 선진화 및 레저문화 조성
 - * 사계절 전천후 언덕주로 신설, 전자카드 비중 확대 등
- 말산업 지속성장 지원체계 구축
 - 말산업 R&D 및 통계조사, 말 개량목표 설정, 말 방역체계 구축 등

- (산업규모) 말산업육성법 제정('11) 이후 말산업 기반 확충 및 저변 확대 등으로 '19년 승마산업 규모*는 '12년 대비 약 60% 성장

* 승마산업 규모 : ('12) 2,671억원 → ('19) 4,274 → ('20) 3,060(코로나 영향 감소)

- 승마산업 일자리도 '19년 74백명으로 '12년 대비 23.8% 증가

* 일자리(간접취업 포함) : ('12) 6,001명 → ('19) 7,432 → ('20) 6,947(코로나 영향 감소)

- (기반조성)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등 인프라 확충으로 말산업의 성장·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

- (승마시설) 농어촌형 승마시설('13. 86개소 → '21. 260), 승마길 조성('16. 57km → '21. 424), 권역별 말산업 육성을 위한 말산업 특구* 지정(4개)

* 특구지정 : ('14) 제주, ('15) 경북, 경기, ('18) 전북

- (제도마련) 말산업 실태조사('12), 말산업 표준매뉴얼(20종*), 말 이력관리 시스템('21) 등 말산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* 표준매뉴얼 : 승용마 사양관리, 승마시설 설치, 승마 즐기기, 유소년 승마 등

- (수요창출) 체험승마 확대 및 승마대회 활성화로 말산업 수요 견인

- 학생승마체험지원('21까지 41.3만명), 유소년승마단 창단('21까지 141개소), 승마대회 개최지원(40여회/연), 기승능력인증제 도입('16) 등

- (고용창출) 말산업 자격제도(3종)* 도입,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(11개소), 취업지원센터 운영('16~)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여

* 자격증 취득인원('22.5월기준) : 말조련사(483명), 재활승마지도사(338명), 장제사(91명)

- (국산마 생산) 국산 전문 승용마 공급을 위한 생산·조련체계 구축

- 씨수말 도입('21까지 25두), 거점 번식센터(4개소) 및 거점 조련센터 지정(4개소) 등으로 승용마 육성·조련 체계 마련

□ (수요) 말 문화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부재로 최근 승마 시장 성장이 더딘 상황

* 승마산업 규모 : ('17) 4,325억원 → ('18) 4,569 → ('19) 4,274 → ('20) 3,060

○ (승마이용) 소수 종목·기승 위주의 제한적인 말 활용으로 승마 시장 수요 확대에 한계 노출

* 장애물 경기 등 소수 종목에 국한, 승마체험은 기승(1시간 이내) 위주 운영

* 승마대회 운영 주종목 : 한국 3종목, 미국 11종목, 프랑스 15종목, 국제연맹 7종목

○ (승마환경) 엘리트 중심의 승마대회 체계, 승마에 대한 부정 인식 (고비용, 위험성 등) 등으로 새로운 승마 인구 진입이 더딘 상황

□ (경쟁력) 국산마의 경쟁력이 낮고, 민간 승마시설의 수익성도 열악

○ (국산마) 열악한 생산 여건, 낮은 조련 수준, 미흡한 유통체계 등으로 우수 국산마 공급이 어려운 환경

* 말 전문 조사료 공급 부재, 승용마 품평 상위등급 획득률 3%(선진국 8% 수준)

○ (승마시설) 민간 승마시설의 높은 정부 의존도, 단순 체험 위주의 사업 구조로 경영 내실화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대책 마련 시급

□ (가치창출) 일자리 창출, 안전·동물복지 등 사회적 이슈 대응력 저조

○ (일자리) 코로나-19 팬데믹으로 인한 말산업 위축, 자격제도와 취업 연계 미비 등으로 말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한계

○ (안전·동물복지) 말 복지, 승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

Ⅲ. 국내외 말산업 현황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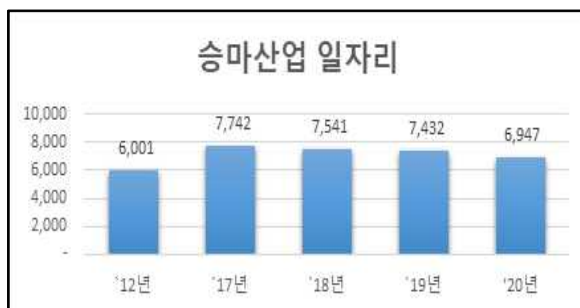
국내외 말산업 현황

□ 승마산업 규모는 3,060억원('20), 승마산업 관련 사업체는 2,582개소('21)

* 승마산업 사업체 : 말사육업, 말조련업, 승마시설업, 말 수의업, 운송관련업 등



□ 승마산업 일자리는 6,947명('20), 승마시설 483개소('21)며, 이중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260개소로 전체 승마시설의 54% 차지



□ 정기승마인구는 48,970명('21), 말 두수(승용)는 11,367두('21)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승마 인구 등 말산업 일시 위축('20~'21)



< 참고 : 해외 말산업 현황 >

□ 전 세계 말 사육 규모는 약 59백만두 수준('19년 기준)

- 아시아 13.9백만두, 중남미 12.5백만두, 북미 11.1백만두, 아프리카 7.4백만두, 유럽 4.7백만두 사육

□ 주요 국가별 말산업 육성 현황

- (미국) 경마, 승마, 레크리에이션 등 말산업 전 분야 발달, 경마를 제외한 대부분은 미국 말위원회(AHC) 등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
 - * 농림부(UDSA)는 규정·제도 제정·운영, 말산업은 주 정부에서 대부분 육성·관리
- (프랑스) 경마, 승마, 레저, 말고기 등 말산업 전 분야가 발달되어 있으며, 특히 관광 승마 분야가 활성화
 - * 프랑스 마사회(IFCE)가 말 관련 공공정책 총괄
- (영국) 영국말산업연합(BHIC)에서 말 스포츠 참가자 확대, 수출·유통 활성화, 보건·복지 강화 등 3개 분야 중점 추진
 - * 농식품부에 말산업전담팀 운영, 영국말위원회(BHS) 등 160여개 민간조직 활동
- (일본) 경마가 승마에 비해 크게 발달, 최근 승마 인구 증가 추세
 - * 농림성 산하에 말산업담당부서 운영, 말종류·사업에 따른 20개 관련 조직 운영

< 주요국가 말산업 현황 >

구 분	미국	프랑스	영국	호주	일본
말산업 규모	1,216억 USD (145조원)	128억 유로 (17.6조원)	82억 파운드 (13.3조원)	14억 AUD (1.2조원)	45,305억엔 (48.3조원)
말 사육두수 (승용마)	7,909,405 (1,227,986)	1,063,654 (714,000)	860,000 (841,000)	264,627 (59,229)	69,041 (15,000)
승마시설(개소)	50,000	9,351	1,130	254	1,012
정기승마인구(명)	200,000	220,000	180,000	16,700	79,880

* 근거 : 해외 말산업 현황조사 연구('18년 기준)

2

개선 필요과제 및 해결방안

- 개선 과제①**
- 말 이용이 경마와 일부 승마 종목에 편중
 - 엘리트 중심 승마 참여 구조로 인해 승마 인구 확산에 제약

- 신규 승마 종목 도입 및 말 콘텐츠 다양화로 말산업 저변 확대 필요
 - 영국, 프랑스, 미국 등 승마 선진국은 다양한 승마 종목을 보급하여 전 국민이 즐기는 국가 산업으로 육성
 - * 해외 이색 승마종목 : 에퀴편, 레이닝, 호스볼, 스키조링, 로드스터 등
 - 해외 승마 선진국은 기승 이외 말 체험과 말 치유기능에도 관심
 - * 말을 이용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말 교감·체험프로그램 운용
- 초급자 중심의 승마 참여 체계 구축으로 승마 인구 확산 유도
 - 승마산업 근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클럽대회, 포니대회 등 유소년·초급자 중심의 기초승마 대회 체계화 추진
 - * 해외 승마인구 규모 : 프랑스 22만명, 미국 20만명, 영국 18만명, 일본 8만명

- 개선 과제②**
- 우수 국산마 육성을 위한 전략적 육성체계 부재
 - 승마시설 대부분이 수익성이 저조하고 자생력이 부족

- 국산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량·조련·유통 체계 개선 필요
 - 해외 승마 선진국의 경우 연령별 조련체계와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품종(300여종)의 말을 생산 및 활용
 - * (2~3세) 어린말 선발 → (4~7세) 어린말 조련 → (8세~) 종목별 활용
- 승마시설 활용도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
 - 레저로서 수요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강습프로그램 개발·지원, 우수 승마시설 표준모델 보급, 기초 승마 인구 저변 구축으로 승마시설 이용 확대

개선 과제③	• 경주퇴역마에 대한 사후관리 등 말 복지 체계 미흡 • 말산업을 통한 사회 공익 기여 활동이 저조
---------------	--

- 경마산업 지속성 담보를 위한 말 사후관리·복지 체계 정립 필요
 - 경마산업 유지를 위한 전 생애주기 말복지·관리 시스템 관심 고조
 - * 미국(TAA) 등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말 복지 프로그램 운영 중
 - 국내 타 축종의 경우 '12년부터 동물복지 인증제 도입 시작
 - * 타 축종 : 산란계('12), 양돈('13년), 육계('14), 젓소·한우·염소('15)
- 말산업을 이용한 다양한 사회공익사업 확대 추진 필요
 - 경마 수익에 대한 적정한 사회 환원 정책 마련 검토
 - 재활승마, 힐링승마 등 사회공익 승마지원으로 말산업 공익성 확대
 - * 소방관, 방역직, 코로나 의료진, 교정직 등 심리 치유 효과 관심 증가

개선 과제④	• 일자리 창출,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으로서의 역할 부족 • 말 이용업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 체계 부재
---------------	---

-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인력양성 및 공급 기능 미흡
 - 말산업 분야별 적정 인력 공급 및 전문가 양성 체계 마련 필요
 - * 국내외 말산업 종사자수 : 미국 174만명, 프랑스 6.5만명, 한국 1.5만명
 - 말 체험 등 말 활용 확대에 대응할 전문인력 공급체계 구축 필요
 - * 프랑스 승마보조지도사(AAE)는 승마 강습 교관 역할 외 말 체험, 학생인솔 등 수행
-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승마 안전 체계 마련 절실
 - 말, 시설,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안전한 운영체계 마련 필요
 - *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안전보건경영인증제 등

IV. 제3차('22~'26) 말산업육성 종합계획

□ 추진 전략 및 과제

비전	말과 함께, 국민 즐거움과 미래가치 창출 - 더 가까운 馬, 더 든든한 馬, 더 따뜻한 馬 -		
목표	경제적 목표 - 승마산업 규모 5,000억원 - 승마산업 일자리 9,000명 - 정기승마인구 80,000명	사회적 목표 - 말이용 만족도 향상 - 말산업 가치 제고	
전략	즐기는 말문화 확산	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	말산업 사회공헌 강화
추진 과제	① 정기 승마인구 확산 ① 승마대회 체계화 ② 학생승마 생활체육화 ③ 유소년 승마지원센터 설치 ② 다양한 승마문화 조성 ① 다채로운 말 체험프로그램 확대 ② 관광·체험형 복합시설 등 보급 ③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강화 ③ 안전한 승마환경 강화 ① 안전한 말 이용체계 구축 ②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 운영 ③ 맞춤형 기승프로그램 보급	① 국산마 경쟁력 강화 ① 국산 승용마 개량 ② 말 표준 조련시스템 구축 ③ 국산 승용마 브랜드 도입 ② 말산업 유통 활성화 ① 말 유통·이력 관리 체계화 ② 온라인 등 말 거래시스템 다양화 ③ 말 활용 다양화 ③ 말산업 인력 전문화 및 취·창업지원 강화 ①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 ② 말산업 취·창업 지원 강화 ③ 말산업 자격제도 체계화	① 재활·힐링 승마 활성화 ① 재활 프로그램 표준화 ② 공공승마시설 중심 재활승마 확대 ③ 힐링 승마 육성체계 마련 ② 말 동물복지 선도 ① 말 복지 가이드라인·인증제 도입 ② 경주퇴역마 종합관리체계 구축 ③ 말 종합방역체계 구현 ③ 사회 공익 기능 확대 ① 말 관련 공익사업 확대 ② 말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 ③ 건전한 말 문화 조성

① 정기 승마인구 확산

◆ 승마대회 체계화, 유·청소년 승마 활성화 지원 등 미래 승마 수요 지속 확보

* 정기승마인구 ('21) 4.9만명 → ('26) 8만명

① 승마대회 체계화

○ 엘리트 중심의 승마대회 운영에서 참가자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* 승마대회 운영으로 개편('23)

* 기초대회(초급자 중심 대회 운영) → 광역대회(기초대회 입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 참여 유도) → 전국대회(광역대회 입상자, 선수급 수준)로 단계별 체계화

○ 승마대회 참가 신청, 실적관리 등 승마대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'승마대회 통합관리시스템' 구축('24)

* 승마대회 공지, 참가 신청, 대회 운영, 참가자 기록관리, 중복지원 여부 등 통합 관리

○ 초급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종목 다양화*, 초급경기 대회 확대 등 승마대회 프로그램 다변화 추진

* 현재 주요종목 3개(장애물, 마장마술, 지구력)에서 5~6개 종목으로 확대

② 학생승마 생활체육화

○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승마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과목으로 편입 추진

* 학교 체육과목 승마 도입 목표 : ('26) 초등학교 30개소

- 방학 기간 특별 승마체험 프로그램* 운영, 정기 승마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말 문화 콘텐츠 보급으로 유·청소년 참여 기반 조성

* 말과 교감 활동, 초급 승마 교육, 농촌체험 등과 연계한 승마캠프 운영

- 승마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전문 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학생승마 지도자 역량 강화('25)

*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승마 전문 지도자 교육과정을 수료한 지도자를 보유한 승마시설에 한해 지원 추진

③ 유소년 승마지원센터 설치 및 유소년 승마 활성화

- 지자체를 통해 학생승마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, 유소년 승마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·상담 등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시스템 부재

- 유소년 승마 관련 지원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소년 승마지원센터를 마사회에 설치('23)

- 아울러, 학생승마체험 신청, 중복지원 검증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축('23)

-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을 확대하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 개발·보급*('23)

* 유소년(초등학교 저·고학년, 중학생) 단계별 승마 지도과정 및 모형개발 등

- 정기승마대회 내 유소년 전용 승마경기 개최, 유소년 맞춤형 경기 종목 개발 등 유소년 승마 활성화 지원

* 현재 일부 일반승마대회 개최시 유소년 분야 포함하여 개최

2 다양한 승마문화 조성

◆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설,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홍보 강화

* 말 체험프로그램 확대 보급('24) 관광·체험형 복합승마시설 표준모델 개발('24)

1 다채로운 말 체험프로그램 확대

- 휴양시설·농촌체험휴양마을, 관광단지 등과 연계한 레저승마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승마시설 등 보급
 - 목장·산림을 활용한 ①휴양형 승마, 주요 관광단지와 연계한 ②관광형 승마, 캠핑·트래킹·해변 등 자연과 접목한 ③활동형 승마 프로그램 개발
- 해외에서 검증된 쉽고 재미있는 초급 승마종목을 보급하여 승마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참여 확대 유도



① 에퀴편



② 에퀴필



③ 헌터

- ① 에퀴편 : 다양한 코스를 정확히 이행하고 빠른 시간 내 들어오는 경기(포니 등 활용)
- ② 에퀴필 : 기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롱레인을 활용하여 말이 정해진 코스를 완수하도록 유도하는 경기
- ③ 헌터 : 코스를 코스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수행하는 초급 경기
- 승마시설이 대부분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내 승마 체험 지원을 위한 이동식 승마체험 교실 운영
 - * 도심 공원,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승마체험, 관상마 전시 등 운영
- 말을 직접 타지 않고도 말을 체험할 수 있는 비(非) 기승 말체험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말과의 교감 및 친숙도 증진 유도
 - * 교감형 승마 캠핑, 말산업 직업체험, 말 역사체험관 운영 등

② 관광·체험형 복합승마시설 등 보급

- 민간승마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광·체험형 복합승마시설 표준모델 개발·보급('24)
 - * 글램핑·말산업 체험·말역사 교육 등 복합 체험이 가능한 가족형 승마시설 보급
- 공공승마시설, 영천경마공원 등을 활용하여 관광·교육·재활 등 지역거점 복합승마시설로 기능 강화
- 승마시설 신·증축 등에 대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을 통해 승마시설의 진입 장벽 완화
 - *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자체 조례상의 가축사육제한거리 등

③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강화

- 승마 문화 확산을 위해 온·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병행하여 홍보 강화
 - * (온라인) 인플루언서·인기 유튜버 등을 활용해 승마 효과, 우수 승마시설, 안전성 등을 홍보하고 체험·소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·보급
 - * (오프라인) 승마 경험 확산을 위해 승마 관심자·유경험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, 도심에 말산업 홍보관 조성
- 신규 승마 인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한 여성층과 MZ세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
 - * (여성) 승마를 통한 건강·미용·힐링 효과 및 승마 패션 등에 집중 홍보
 - * (MZ세대) IT 기술을 활용한 승마체험 등 가상현실 구현, 힐링승마 지원 등
-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을 위해 승마시설 이용 형태 등 승마이용자 분석을 위한 소비자조사* 매년 실시('24)
 - * 승마 인구, 참여자 성별·연령·소득·직업, 이용 형태 등 승마 이용 현황조사

3 안전한 승마환경 강화

◆ 안전 승마환경에 필요한 말, 승마시설, 기승자 표준 운영체계 구축

* 말 순치도 평가 강화,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, 맞춤형 기승프로그램 마련

1 안전한 말 이용체계 구축

- 승용마로서 적응 정도를 검증하는 승용마 순치도 품평회*를 권역별로 확대(연 1회 → 4회)하여 승용마의 안전성 강화

* 평가 요소 : 안장 순치, 장애물 적응, 감각평가(시각, 청각 등), 긴급정지 등

- 승용마 위탁 조련시설 지정 확대로 안전한 승용마 공급을 위한 조련 기반 강화

* 민간 위탁조련시설 : ('21) 17개 → ('26) 30개

- 순치 검증된 안전한 말을 승마시설에서 일정 비율 확보하도록 정부지원 사업(학생승마체험 등) 선정평가 항목 포함 등 연계 추진

2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 운영

- 승마시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시설 발굴 및 확산 유도를 위해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 도입('25)

- 시설 수준, 안전관리 체계,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승마시설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갱신 지정

*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, 운영 방안 등 마련

- 사고 예방 및 승마시설 운영자들의 안전 인식도 향상을 위해 승마 시설 운영자 안전관리 보수교육제 도입
 - * 우수 승마시설, 학생승마체험지원 승마시설 대상 우선 적용,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
- 승마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
 - * 정책지원 대상 시설 및 정기점검을 희망하는 시설에 한해 우선 점검 실시
- 승마시설 안전 수칙, 대처요령 등 안전 운영 프로그램 제작·보급
 - * 안전 인식향상을 위한 정보 제작·배포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

③ 맞춤형 기승프로그램 보급

- 장애물 넘기 등 단순·획일적인 기승프로그램을 연령별·수준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보급
 - * 종목별, 수준별(초급·중급·고급) 등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
- 기승능력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승능력인증제 시험을 민간 주관으로 확대 운영
 - * (현재) 마사회 주관(1~7급) → (개선) 초·중급(4~7급) 인증 : 지정협력 승마시설 주관, 상급(1~3급) 인증 : 마사회 주관
- 기승능력인증제 확대 시행을 위한 기승능력인증 심사위원, 지도자 육성 등 교육체계 마련
 - * 기승능력인증 심사자격 취득, 갱신 보수교육, 전문 지도자 과정 등

① 국산마 경쟁력 강화

◆ 생산 국산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개량, 조련, 브랜드화 지원

* 씨수말 검정 도입('25), 승용마 브랜드 도입('26)

① 국산 승용마 개량

○ 국산 승용마 개량 촉진을 위해 해외 우수 씨수말 및 동결정액 도입 확대

* 세계 승용 씨수말 순위('21, 세계스포츠말 생산자협회) : ① Chacco-Blue(독일), ② Diamant de Semilly(프랑스), ③ Casall(독일), ④ Mylord Carthago(프랑스)

○ 말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승용마 인공수정 기술의 보급을 강화하고 농가에 필요한 번식기자재* 지원

* 질소탱크, 정액해동기, 보정틀 등 지원

○ 승용마 생산 농가에 기초 조련이 가능하도록 간이 조련시설* (프리점핑장) 설치 지원

* 이동식 펜스(내부·외부)와 장애물로 구성

② 말 표준 조련시스템 구축

○ 말의 연령별 조련체계를 구축하여 성장단계별 체계적 조련 유도

- (조련) 기초 조련(2~3세), 심화조련(4~7세) 구분으로 표준 조련체계 구축

* 연령별·성장단계별 효과적인 말 표준 조련체계 개발 연구 등

- (검증) 품평회*(2~3세), 어린말 선발대회(4~7세)를 통해 조련 검증 강화

* 승용마의 체형, 걸음걸이, 프리점핑 등을 평가하여 1~3등급 부여



- 우수 조련 기술 보급과 국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 전문 조련사 초빙, 민간 품평관 확대, 성장단계별 코스 디자이너* 양성 추진

* 장애물의 높이와 위치를 설정하여 경기 난이도를 조절하고 지도하는 전문가

③ 국산 승용마 브랜드 도입

- 우수한 국산 승용마 번식·육성을 위해 국산 승용 씨수말 선발·육성·검정 프로세스 구축('25)

* 선발된 씨수말은 동결정액 제조 및 브로셔 제작, 생산 자마는 한국형 스포츠말 등록

- 승용마 능력지수 개발, 개량목표 설정 등 국산 승용마 브랜드 정립 및 육성을 위한 연구('24)

< 해외 주요 승용마(웜블러드종) 브랜드 >

- 국가명 유래 : 셸프랑세(SF, 프랑스), BWP(벨기에), KWPN(네덜란드)
- 지역명 유래 : 하노베리언(하노버), 홀스타이너(홀슈타인)
- 목장명 유래 : Z(Zangerscheide, 벨기에)

② 말산업 유통 활성화

◆ 생산마 판로를 다양화하여 말 생산 농가 수익 극대화

- * 말산업정보센터 설치·운영('23), 영상 기반 말 홍보유통 플랫폼 구축('25)

① 말 유통·이력 관리 체계화

- 말 이용 전 과정(생산·유통·이용·폐사)의 체계적 이력 관리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, 지역별 등록심사원 운영 강화로 말 이력 정확도 제고

- * 외부등록심사원('21) : 46명(내륙 31명, 제주 15명)

- 말 이력 정보 현행화, 체계적인 말 등록 관리·정보제공 등을 위한 (가칭)말산업정보센터 설치·운영('23)

- * 기존 마사회의 말등록원을 확대·개편하여 말산업 통합정보관리 허브 기능 부여

- 말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말등록기관(마사회·제주축산진흥원) 및 유관단체*와의 말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

- * 대한승마협회(승용마정보), 대한수의사회(진료정보), 축산물공판장(도축정보) 등

② 온라인 등 말 거래시스템 다양화

- 승용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순차·조련·승마대회 등 영상 제작 지원, 온라인 품평회 개최 등을 위한 온라인 유통플랫폼 구축('25)

- * 승용마 특성상 용도와 품종이 다양하여, 세계적으로 경매보다 개별거래 보편적

- 개별 거래 외에 생산 및 육성협의체가 중심이 된 말 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하여 말 거래 다양화

③ 말 활용 다양화

- 경마와 승마 외에 교육, 관광 등 다양한 말의 활용처 발굴 추진
 - * 교육, 기마, 동물원·생태관광지 등의 관광용 등 다양한 수요처 발굴
- 말의 수입 수요가 있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산 말 수출 추진
 - * 국산마 수출 여건 조사 및 수출 가능 국가 검역 협정 체결 등
- 말의 부산물 등을 활용한 가공상품(화장품, 의약품 등) 개발, 말 생산, 사육 기술, 연관산업 육성 등을 위한 R&D 강화
 - *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, 말사육 경영 우수모델 발굴, 장구류 상품개발 등

③ 말산업 인력 전문화 및 취·창업지원 강화

- ◆ 말산업 분야 인력 전문화 및 취·창업지원 등으로 일자리 확대 도모
 - * 말산업 취업지원 : ('21) 연간 약 260여명 → ('26) 연간 400명

①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

-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평가·지원체계를 개편*하고 해외 전문교원 영입을 지원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
 - * 부실 교육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, 평가를 통한 예산 지원 차등폭 확대 등
 - * 전문인력양성기관 : 11개소(대학 5개소, 고등학교 6개소)
- 말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전문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과정을 개발·보급('24)
 - * 말 체험지도사, 학생승마지도사, 조련전문가, 기승능력인증 전문가 등 분야별 현장 전문인력 육성지원과정 마련

- K-MOOC(교육부 온라인 공개강좌시스템)를 활용*하여 말산업 관련 온라인 학습 콘텐츠 보급 확대

* 현재 2개 과정(마학·마술학기초과정, 말보건관리·재활승마 기초과정)이 운영 중

② 말산업 취·창업 지원 강화

- 전문인력 양성기관 졸업생 대상 말산업 인턴십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

- 말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* 마련

* ① 예비 창업자 발굴 → ② 전문가 컨설팅 → ③ 사업화 지원 → ④ 성공사례 공유 등

- 말산업 현장의 원활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강화

* 말산업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소요와 말산업 분야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전문인력 간 취업 매칭 지원 강화

③ 말산업 자격제도 체계화

- 현재 3등급까지만 시행하고 있는 말산업 자격증에 대해 상위 등급(1~2등급)을 도입*(25)하여 고급 수준의 전문인력 공급

*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, 상위등급 신규 교재 보급 등 추진

- 자격증 제도의 운영 내실화와 자격증 보유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말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제 도입

* 보수교육 운영 근거마련, 자격취득자 교육 이수 교육프로그램 개발

① 재활·힐링 승마 활성화

◆ 재활·힐링 승마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, 인력, 표준프로그램 확충

* 재활승마 표준 프로그램 개발·보급('24), 재활승마 협력시설 지정 확대

① 재활 프로그램 표준화

○ 장애, 중독, 우울증 등 재활 대상별 맞춤형 재활승마* 강습 표준 프로그램 및 메뉴얼을 개발하여 승마시설에 보급('24)

* 재활승마 :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승마 활동

○ 재활승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재활승마지도사*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확보·지원 방안 마련

*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취득자('21) : 338명

○ 민간과의 협력 강화*로 민간 주도의 재활승마 확산 분위기를 유도

* 재활승마 표준프로그램 보급·모니터링·피드백, 해외자료 제공 등

② 공공승마시설 중심의 재활승마 확대

○ 부족한 재활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·민간 재활승마 협력 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시설 개선 및 운영 지원

* 재활승마에 적합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물품 지원, 재활승마 전용마 보급 등

○ 특수학교, 장애인 시설 등과 연계한 재활승마 협력사업 추진

* 재활승마가 효과적인 분야를 발굴하여 시범사업 추진

③ 힐링승마 육성체계 마련

- 정서적 장애 유형별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힐링승마 효과성 연구 및 홍보 등으로 힐링승마 확산 유도
- 스트레스·트라우마 민감 직종*에 대한 승마체험 지원 확대

* 콜센터, 요양보호사, 보육교사 등

② 말 동물복지 선도

◆ 경주퇴역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 동물복지 선도

* 말 복지가이드라인 제정, 말 복지센터 강화, 경주마 전문 재활병원 운영

① 말 복지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 도입

- 승용마 등 말의 용도별로 실효성 있는 말 복지 기준 제시를 위한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('25)

* 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책임 주체, 사양관리, 동물학대 금지 등 준수사항 등 제시

- 말의 전 생애 복지증진을 위해 말 복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·검증체계 구축('26)

* 용도별 특성에 맞는 말 복지기준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

- 말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말 관계자 동물복지교육 과정 도입('25) 및 말복지 전문가 양성

* 말 소유 및 관련업 종사자 동물복지교육, 말 복지 정책 행정 전문가 양성 등

② 경주 퇴역마 종합관리체계 구축

○ 경주퇴역마의 승용마 전환·재활 등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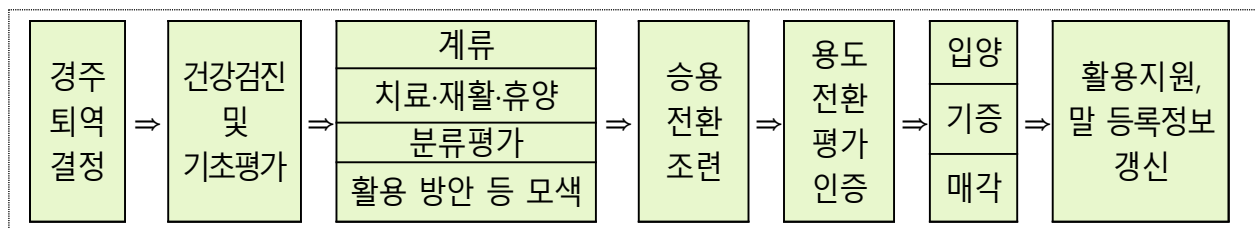
- * 경마관계자 상금 일부 및 마사회 기부금을 매칭으로 기금조성·운용
- * 복지기금 조성액 : ('20) 60백만원 → ('21) 154백만원 → ('22) 335백만원

○ 마사회 말복지센터* 기능 강화, 경주마 수술·재활 전문병원** 지정 등 말복지 인프라 강화

- * 경주퇴역마 용도 전환, 재활, 입양, 교육 등 말 복지 전담 기능 수행

- ** 서울동물병원 신축으로 경주마 진단·수술·재활·구조 등 종합 재활 기능 수행

< 경주퇴역마 관리 체계(안) >



③ 말 종합방역체계 구현

○ 국내 말산업을 보호하고 청정한 말 보건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등록말에 대한 전염병 예방백신* 접종 지원

- * 말인플루엔자, 일본뇌염, 선역·파상풍 등 백신접종 지원

○ 선제적인 말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(농림축산검역본부·지자체·마사회) 말 전염병 모니터링 강화

- *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말 전염병 7종(일본뇌염, 아프리카마역, 말전염성동맥염, 웨스트 나일열, 수포성구내염, 말전염성 빈혈, 말인플루엔자) 대상 검사 및 예찰 강화

○ 말산업정보포털(HORSEPIA)을 통해 말 개체별 예방 접종, 방역사항 안내 등 방역 정보 제공 강화

③ 사회 공익 기능 확대

◆ 취약계층 지원 확대, 건전한 말 문화 조성 등으로 말산업 공익 기능 강화

- * 문화·복지 도농 상생사업 등 확대, 경마시설의 레저문화공간화 추진

① 말 관련 공익사업 확대

- 저소득층,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**사회공익 승마체험** 지원 확대
 - *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 승마체험 등 제공
- 경마 수익을 활용하여 승마 외 농촌·농업인 대상 **문화·복지 도농 상생사업 등 공익사업 확대** 추진
 - * 농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문화 활동, 노인 돌봄, 농축산물 직거래장 운영 등

② 말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

- 말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, 정책 제언 등 의견수렴 및 발전방향 등 논의를 위한 **말산업발전 협의체 운영**(‘23)
 - * 말산업계, 말산업특구 지자체, 전문인력 양성기관, 전문가 등으로 구성
- 승마산업 각 분야별 실무자 중심의 소통 네트워크 마련(‘23)
 - * 승마시설 운영자, 승마단체, 소비자 등 분야별 실무자 소통 강화를 통해 승마 활성화 논의

③ 건전한 말 문화 조성

- 경마장 등 경마시설의 **레저문화공간**으로서 기능 강화
 - * 배팅 위주의 시설 운영을 탈피하여 다양한 레저문화공간으로서 활용방안 마련
- 경마시설 내 **승마·말산업 체험 홍보관** 설치·운영 추진
 - * 말의 특성, 말의 역사, 승마체험, 말산업 분야 취·창업 정보 등

V. 기대효과

- 승마 산업에 대한 육성 및 투자 확대를 통해 **승마 산업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**

* 승마산업 규모 : ('20) 3,060억원 → ('26) 5,000억원

- 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제도 체계화, 말산업 분야 전문가 육성, 취·창업지원 등으로 **일자리 증대**에 기여

* 승마산업 일자리(간접취업 포함) : ('20) 6,947명 → ('26) 9,000명

- 다양한 승마 문화 확산, 승마대회 체계화,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 등으로 **승마 인구 확산 및 말 수요 확대**에 기여

* 정기승마인구 : ('21) 4.9만명 → ('26) 8만명

- 국산 승용마에 대한 생산·육성·조련 강화 및 유통체계 확립으로 **국산 승용마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 도모**

* 씨수말 검정제도 도입, 영상 기반 승용마 온라인 유통플랫폼 구축 등

- 말 복지 관리체계 및 기반 강화 등으로 **말 복지 향상**에 기여

* 말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, 말산업 관계자 복지교육과정 도입 등

- 재활·힐링 승마 보급 등 경마 수익을 통한 사회 공익 기능 강화로 **말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**